

※ 오답률 상위 5문항 해설

1) 1위 : [비문학-인문] 23번

23.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내가 알고 있는 ㉡ 어떤 개는 ㉣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 비슷하게 생긴 ㉡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나
③	라	가	다
④	라	나	다
⑤	라	다	나

[이 문제를 풀어 낸 설쌤의 사고과정]

- 발문을 보면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라고 되어 있다.
→ 유비 논증에 대한 설명은 (가)와 (나) 문단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 (나) 문단을 보면 ㉠은 실험동물, ㉡는 유사성, ㉢는 반응 결과이다.
- (가) 문단 첫째 줄~넷째 줄에 의하면, 유비 논증은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라고 나와 있다.
→ <보기>를 보면 '어떤 개'와 '다른 개'에 각각 밑줄이 쳐져 있다.
- (나) 문단에 ㉠, ㉡, ㉢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라고 나와 있다.
→ 이 문장에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유사성을 보유한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임에 주목하여 <보기>에 대응시키면, ㉡ 어떤 개(㉠ 실험 동물)의 ㉣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 반응 결과)을 ㉡ 비슷하게 생긴(㉡ 유사성) ㉣ 다른 개(인간)에게도 그러한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적용한 것. 정답 ②번!

[한 줄 코멘트] 어렵다기보다는, 실수하기 쉬웠던 문제! 3점인 이유가 있다.

2) 2위 : [문법] 12번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곱다	곱게	고바	고븐	곱게	고와	고온
②	(선을) 긋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눅다	눅게	누버	누븐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이 문제를 풀어 낸 섣뽕의 사고과정]

(1) 와, 애들한테 진짜 충격적인 문제겠네. 멘탈 많이 나가겠는데.

(2) 발문을 보면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추정'하라고 나와 있다.

→ 제시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면,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말은 '빙'과 관련이 있고, 어간이 'ㅅ'으로 끝나는 말은 'ㅅ'과 관련이 있음에 주목. 그리고 '빙'과 'ㅅ'이 15세기 중엽에는 존재했는데,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고 나와 있었음에 주목

(3) 선택지의 '표'를 보면 '-게', '-아/-어', '-은/은'의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다.

→ 제시된 자료의 1문단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구별되어 있었음에 주목.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1문단을 종합할 때, 15세기 중엽에서는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ㅂ'이 '빙'으로 바뀌고, 'ㅅ'으로 끝나는 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ㅅ'이 'ㅅ'으로 바뀌며, 연음되어 표기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선택지 '표'의 조건에 보면 '-아/-어', '-은/은'은 모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데 구별되어 있음. 제시된 자료의 2문단에서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빙'은 'ㅂ' 또는 'ㅅ' 앞에서는 반모음 'ㅂ̚/ㅅ̚[w]'로 바뀌었고, 'ㅅ' 또는 'ㅂ'이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ㅂ' 또는 'ㅅ'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추정할 때 근거로 쓰일 듯.

(4) 이제 선택지를 지워 나가야지.

- 일단 ④번이 1순위로 탈락되는군. '-게'와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④번은 '빋다'가 활용하면서 '빋게'로 바뀌어 있으니까. ①번, ②번, ③번, ⑤번은 모두 맞군. 그 다음 ①번, ③번, ⑤번은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말이니까 15세기 중엽에서는 '-아/-어', '-은/은'과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ㅂ'이 'ㅃ'으로 바뀌고 연음되어 표기되어야 하겠군. ①번, ③번, ⑤번의 활용형을 모두 보니 ①번은 '고박', '고뵤'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맞고, ③번은 '누뵤', '누뵤'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맞고, ⑤번은 '자박', '자뵤'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맞군. ②번은 어간이 'ㅅ'으로 끝나는 말이니까 15세기 중엽에서는 '-아/-어', '-은/은'과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ㅅ'이 'ㅆ'으로 바뀌고 연음되어 표기되어야 하는데, 활용형을 모두 보니 '그서', '그슨'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맞군.
- 17세기 초엽의 활용형 판단해야지. ①번, ③번, ⑤번은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말인데 'ㅃ'이 소실되었으니, 'ㅌ' 또는 'ㄷ' 앞에서는 'ㅃ'이 반모음 'ㅍ/ㅑ[w]'로 바뀌었고, 'ㅇ' 또는 'ㄴ'이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ㅌ' 또는 'ㄷ'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있었지. 일단 '-게'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 ①번, ③번, ⑤번 전부 다 맞군. 모음 어미 '-아/-어'가 결합할 때는 자료에 의하면 'ㅃ'이 없어지면서 반모음 'ㅍ/ㅑ[w]'로 바뀌어야 하니까, 즉 '-아/-어'가 반모음과 결합하면서 이중모음이 되어야 하니까 ①번의 '고와', ③번의 '누워'는 맞는데 ⑤번의 '자바'는 틀렸군. 그 다음, 모음 어미 '-은/은'이 결합할 때는 자료에 의하면 뒤의 모음과 결합하여 'ㅌ' 또는 'ㄷ'로 바뀌어야 하니까 ①번의 '고온'은 맞는데 ③번의 '누은'은 틀렸군. 와, 애들 답 고르는 과정 복잡해서 엄청 힘들어했겠다. 마지막으로 ②번을 보면, 17세기 초엽에는 'ㅆ'이 소실되었을 것이고, 자료에 의하면 '아스>아으', '저서>저어'와 같이 'ㅆ'이 탈락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서', '그슨'과 같은 활용형은 옳지 않겠군.
- 사실 탐구 활동과 자료에 의하면, 현대 국어에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용언들을 국어사적 관점으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④번과 ⑤번은 현대 국어에서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라서 바로 지워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세 국어/국어사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 국어 지식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줄 코멘트] 무조건 3점 문제인데, 출제자가 배려해 준 듯. 정답 위치도 그렇고.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B]를 이용해 학습시키고자 한다.

[A]

- 입력 단자는 세 개(a, b, c)
- a, b, c의 현재의 가중치는 각각 $W_a=0.5$, $W_b=0.5$, $W_c=0.1$
-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

[B]

-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는 각각 $I_a=1$, $I_b=0$, $I_c=1$
-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1

- ①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
- ②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군.
- ③ [B]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W_a , W_b , W_c 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
- ④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하겠군.
-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1이겠군.

[이 문제를 풀어 낸 설쌤의 사고과정]

- (1) 전형적인 <보기>에 적용하기 문제이군. 지문이 꽤 어려워서 애들이 잘 풀 수 있었으려나... 정답률 좀 낮겠다.
- (2) 일단 ①번, ②번은 빨리 지울 수 있겠네. 5문단 밑에서 넷째 줄 끝에 보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고 했으므로, ①번의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리고 <보기>에 의하면, 가중합이 1보다 작지 않으면 1을 출력하므로, ②번의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군.'은 완전히 반대말이군.

- (3) 이제 ③번, ④번, ⑤번 판단해야지. 먼저 ③번 보니까 '가중치가 모두 늘어난다.'가 맞는지 확인해야겠군. 5문단 전체 내용이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었는데, 5문단 넷째 줄~열째 줄에 의하면,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 - 출력값 = 오차',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 단자에서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고 했으므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서 오차가 생겼다면 가중치가 모두 늘어난다고 판단하면 되겠군. <보기>의 [A]를 보면 입력 단자 a, b, c의 가중치는 $W_a=0.5$, $W_b=0.5$, $W_c=0.1$ 이고, [B]를 보면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가 각각 $I_a=1$, $I_b=0$, $I_c=1$ 이라고 나와 있다. 2문단 셋째 줄~여섯째 줄에 의하면,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라고 나와 있으므로, <보기>의 상황에서 가중합을 구하면 $(0.5 \times 1) + (0.5 \times 0) + (0.1 \times 1) = 0.6$ 이다. <보기>를 보면 가중합을 토대로 출력값이 나오는데, <보기>의 [A]를 보면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임계치 1보다 작지 않으면 1을 출력하므로, 한 번 학습하면 출력값이 0이 나온다.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이 '1'이므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오차가 '1'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오차의 일부가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져서 가중치가 늘어날 것이다. 정답 판단하기가 조금 복잡하네! $(0.5 \times 1) + (0.5 \times 0) + (0.1 \times 1)$ 로 합하지 않고, 계산한 값을 각각 0.5, 0, 0.1로 보고 가중치 W_b 는 증가하지 않겠다고 실수한 학생들 좀 있었겠다.
- (4) ④번, ⑤번 빠르게 검토해야겠다. ④번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이 0에 수렴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5문단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살펴보면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라고 나와 있으므로, ④번은 '출력값이 1에 수렴하겠군.' 또는 '오차가 0에 수렴하겠군.'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지. 지문 내용이 어려워서 꼼꼼하게 못 읽은 애들은 ④번 고를 확률이 높겠네. ⑤번은 ③번 판단하면서 한 번 학습하면 출력값이 '0'이 나오는 것 확인했으므로 빠르게 지워야겠군.

[한 줄 코멘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 고난도 문제

4) 4위 : [문법] 13번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맑+네 → [망네]
- ㉡ 낮+일 → [난닐]
- ㉢ 꽃+말 → [꼰말]
- ㉣ 굵+고 → [글꼬]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팔+죽 → [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굵+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이 문제를 풀어 낸 설쌤의 사고과정]

(1) 친절하 설명이 없네. 역시 음운 변동 쪽은 항상 고난도로 출제하는군.

(2) 일단 ㉠, ㉡, ㉢, ㉣ 각각 분석해 놓고 선택지 판단해야지.

㉠ '맑+네 → [망네]'는 [막네](탈락 - 자음군 단순화) → [망네](교체 - 비음화)

㉡ '낮+일 → [난닐]'은

[날닐](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난닐](첨가) → [난닐](교체 - 비음화)

㉢ '꽃+말 → [꼰말]'은

[꼰말](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꼰말](교체 - 비음화)

㉣ '굵+고 → [글꼬]'는

[글고](탈락 - 자음군 단순화) → [글꼬](교체 - 된소리되기)

(3) 선택지 하나하나 판단하면 끝!

① '값+도 → [갑또]'에서나 ㉠의 '맑+네 → [망네]'에서나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있다.

② '입+니 → [임니]'에서는 'ㄴ'이 'ㄹ'으로 교체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 ㉢ 모두 공통적으로 비음화 현상이 있다. 비음화는 조음 위치가 아닌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라는 것은 작년 수능에서도 다뤘던 내용!

- ③ '물+약 → [물락]'은 [물낙](첨가) → [물락](교체 - 유음화)의 과정을 거치므로, '물+약 → [물락]'과 ㉠에는 모두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계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물+약 → [물락]'만 본 친구들은 첨가만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③번을 고르는 실수를 할 수도 있겠네. ※ 나중에 오답률 보니, 생각보다 실수한 아이들이 많았네요.
- ④ '팔+죽 → [팔죽]'에서나 ㉡, ㉢에서나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로서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이거 작년 수능에서 음운 변동 정답 선택지였던 것 기억하시는가? 기출문제 분석이 이렇게 중요하다!
- ⑤ '읽+지 → [일치]'에서는 자음이 축약되지만, ㉣이 축약 현상이 전혀 없다. 정답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온다!

[한 줄 코멘트] 제발 다섯 개의 선택지 모두 검토해서 정답 하나 고르세요!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킨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이 문제를 풀어 낸 설쌤의 사고과정]

- (1) <보기>에서 제시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 꽤나 걸릴 만한 문제였겠군.
- (2) 관형절을 안은문장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다는 데 주목!

(3) [가]는 밑줄 친 '동생'이 ㉠ 주어로, [나]는 밑줄 친 '책'이 ㉡ 목적어로, [다]는 밑줄 친 '도서관'이 ㉢ 부사어로 각각 대응되는 것을 확인. <보기>에서 보여준 과정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됨.

① 둘 다 '주어'로 쓰여야 함.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 안긴 관형절은 [어제 결혼한]
→ 문장으로 바꾸면 '그들이(주어) 어제 결혼하였다'
-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안긴 관형절은 [누나를 많이 닮은]
→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주어) 누나를 많이 닮았다'

② 둘 다 '주어'로 쓰여야 함.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 안긴 관형절은 [나무로 된]
→ 문장으로 바꾸면 '탁자가(주어) 나무로 되었다'
-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안긴 관형절은 [시대에 뒤떨어진]
→ 문장으로 바꾸면 '생각이(주어) 시대에 뒤떨어졌다'

③ 둘 다 '목적어'로 쓰여야 함.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 안긴 관형절은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 문장으로 바꾸면 '두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부사어) 헤어졌다' 정답!
-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안긴 관형절은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 문장으로 바꾸면 '어제 부모님이 일을(목적어) 시키셨다'

④ 둘 다 '목적어'로 쓰여야 함.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 안긴 관형절은 [친구가 나에게 준]
→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 나에게 옷을(목적어) 주었다'
-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안긴 관형절은 [털실로 짠]
→ 문장으로 바꾸면 '(누나는) 털실로 장갑을(목적어) 짰다'

⑤ 둘 다 '부사어'로 쓰여야 함.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 안긴 관형절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 문장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주말에(부사어) 공을 찼다'
-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 안긴 관형절은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 문장으로 바꾸면 '관중이 경기장에(부사어) 쓰레기를 남겼다'

[한 줄 코멘트] 문법 문제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시간이 꽤 걸릴 만했던 문제